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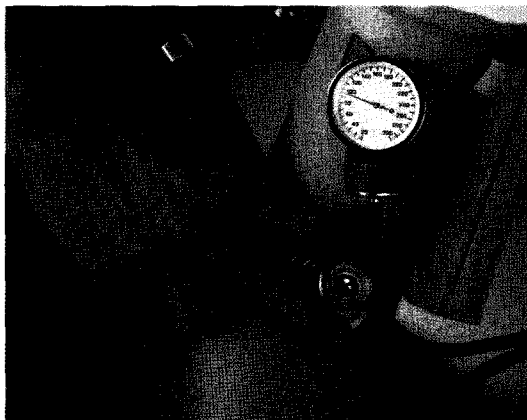
당뇨병 환자, 고혈압에 신경써야

제 2형 당뇨병인 성인당뇨병 환자가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일찍 사망하는 것을 막으려면 혈당 못지 않게 혈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미국 의사협회(ACP)가 밝혔다.

ACP는 '내과학 회보' 최신호 인터넷판에 발표한 새로운 당뇨병 지침을 통해 성인당뇨병 환자는 오로지 혈당조절에만 신경을 쓴다고 지적하고, 혈압조절이 혈당조절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자와 의사 모두 알아야 하며 당뇨병 환자가 혈압이 높을 경우 이노제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억제제의 투여 등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이상의 혈압강화제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 지침은 덧붙였다.

이 지침은 최근 미시간대학의 샌디프 비잔 박사와 로드니 헤이워드 박사가 발표한 임상실험 결과에 비추어 성인당뇨병 환자는 혈압이 135/80mmH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잔-헤이워드 박사의 연구보고서는 성인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을 막는데는 "공격적인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CP는 성인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혈압조절이 혈당조절보다 더 중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뇨 등 성인병 "생활습관병"으로 개명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이른바 '성인병'의 이름이 앞으로 '생활습관병'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한내과학회(회장 강진경·康珍敬 연세대 의대 내과 교수)는 3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성인병의 주원인이 나이보다는 흡연 과식 등 잘못된 생활습관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생활습관병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인병이란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40대 이후에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강 회장은 "대학병원은 물론 개원 의사들과 공동으로 '생활습관병 이름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림의대 구자룡 교수팀; 비타민C·E 당뇨병 합병증 억제효과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함께 비타민 C와 E를 동시에 투여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합병증과 고혈압 발생이 억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신장내과 구자룡교수팀은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의대 신장내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실험용 쥐들을 네 그룹 즉 당뇨병이 없는 정상 쥐, 당뇨병에 걸린 쥐, 인슐린을 투여한 당뇨병에 걸린 쥐, 인슐린과 비타민C·E를 함께 투여한 당뇨병에 걸린 쥐로 나눠 한달여 동안 혈압과 신장기능, 산화(酸化) 스트레스 상태 등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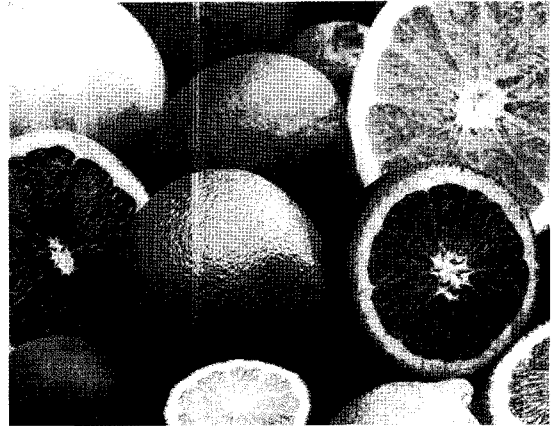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당뇨쥐는 140mmHg 이상, 인슐린 투여 당뇨쥐는 130mmHg 정도까지 올

라졌으나 인슐린과 비타민C, E를 복합 투여한 당뇨쥐는 110mmHg 수준을 유지했다.

신장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단백뇨 수치의 경우, 당뇨쥐와 인슐린 투여 당뇨쥐는 관찰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인슐린과 비타민 동시 투여 당뇨쥐는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또 세포 산화(酸化)의 지표가 되는 MDA, CML등의 수치도 비타민·인슐린을 동시 투여한 당뇨쥐는 훨씬 낮게 유지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임상고혈압학회지와 세계신장학회지에 보고됐다.

구 교수는 "당뇨병환자는 유해산소(free radical) 발생이 증가해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E를 인슐린과 함께



투여함으로써 이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실험 결과지만 인체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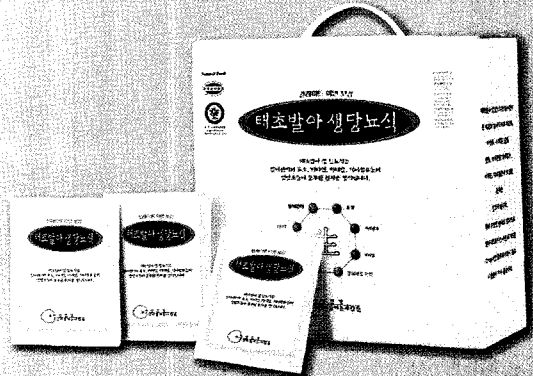
당뇨인을 위한 균형잡힌 생식사 텍소발이 생당노식

- 규격 : 40g×30포, 40g×63포
- 식종유형 : 특수영양식품(흰자음)
- 주요성분 : 발아현미, 발아보리, 발아옥수수, 발아팥, 발아수수, 발아저조, 발아검정콩, 발아물루, 발아밀, 발아검정깨, 케일, 명일엽, 다시마, 미역, 김, 송, 표고버섯, 닭근, 솔잎, 미강, 감자, 메밀, 늙은호박, 양배추, 무, 콩잎, 녹차분말, 아가리쿠스버섯(이성곡산), 표알제리, 프롤리신, 청산호오, 유정알송,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C, 대두식이섬유, 단백질, 등



한국발명특허특독
0325584호
(항당뇨 기능의 생식 타입의 차 조성물)

항산화 성분은 발아현미 / 발아곡식 함유
식이/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뇨는 그 질병 자체가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흡수, 대사에 깊이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식사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생활 개선은 단순한 과식억제와 고칼로리 음식섭취의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효소,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영양소의 균형적인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당노식은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효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성분 등의 미량 영양소들이 파괴되지 않아 균형있는 영양섭취에 좋습니다. 특히 발아생당노식은 서서히 소화흡수되기 때문에 체중에 무리를 주지 않은 식사이며 과식의 걱정도 없습니다. 미네랄 중 아연(Zn)은 인슐린을 직접 구성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당뇨인은 아연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반 아연은 흡수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흡수이용률이 높아지도록 릴레이트화 시킨 단백아연을 식사로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을 바로 알고 인내하여 실천하면 아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